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金鶴香油

社說 체코情勢重大化

一

獨逸合併으로 獨逸의 東進政策이 第一次成功을 告하자 獨逸의 다음의 目標는 當然 체코經營일것이라고 豫測되어 世界의 耳目이 다시 체코로 集中되든때에 체코國內의 獨逸人의 代表的政黨인 주데텐獨逸黨이 去月下旬 칼바드에서열린 年次大會에서 反政府態度를 表明하는 同時에 黨首헨라인氏는 演說로써 주데텐獨逸人의 完全한 自治와 체코政府의 外交政策是正等을 中心으로한『最後通牒과同際』인八個條의 猛烈한宣言을 投擲하야 情勢는 俄然 緊迫하게되어 歐洲列强의 外交動向은 이체코問題를 中軸으로 廻轉되고 잇섯는데 그外交的努力에 不拘코 事態는 緩和되지안헛든것이 去二十一日 보헤미아地方에서 地方選擧警戒中에 獨逸人二名이 체코憲兵에게 射殺된 事件이 突然 勃發하야 形勢는 急轉直下的으로 悪化하게되엇다。

二

即 이突發事件이 發生하자 체코內의 獨逸人은 不穩한 形勢를보이며 주데텐黨은 抗議와 自治決意로 政府에 肉迫하고 政府는 戒嚴令布告、國防軍의 動員 豫備兵召集 國境侵入者의 反擊決意表明等으로 이急迫한 事態에 處하게되고 一方獨逸은軍隊의 國境移駐를 行한다고 傳하고 英佛은 緊急會議를 開하는等 歐洲는 새로운 緊張과 恐怖에 싸이게되엇다。이와가티하야 체코問題는 俄然 急을 告하게되어 이問題는 實로 注目되게되엇스나 체코問題는 獨墺合倂의 境遇와는 달라서 獨逸의 주데텐併合은 체코의 存立을 根底로부터 顚覆하는것이오 체코의 獨逸合倂은 全歐洲의 勢力均衡을 餘地업시 破壞하는 結果가 될것이므로 이問題의 重大性과 체코를 圍繞한 複雜微妙한 外交的 雰圍氣로보아 獨逸로서도 체코 問題에關한限 軍事行動과가튼 早急한 非常手段은 回避할것으로 觀測되는 點도 不無하야 早急한 悲觀을 할것도업는듯하다。

三

勿論보헤미아、실레시아一部를包含한 獨체國境에臨한 所謂 주데텐地方은 그住民의大部分이 獨逸人이어서 當然히 獨逸이나 墺太利에 包括되어야할것이 獨逸의猛烈한 反對에不拘코 民族自決主義에依한 체코建國에 際하야 異民族國家인 체코에 包括된그때에 벌서 內在的 矛盾과 不自然한 無理가 잇섯든것이므로 지금의 歐洲不安의 씨는 이때에 이미 뿌려진것으로 獨逸民族의 經局策과 國權恢復에 餘念이업는 獨逸로서는 當然히 주데텐地方의 合併을 主張할것이오 오랫동안 民族的差別로 政治的經濟的壓迫을 바더 그들의 生存權의 威脅을 밧게된 주데텐獨逸人이 本國에의 合倂을 實現하려고 企圖할것도 또한 當然하나 元來 同盟國에 이地域을 주지 아니한 理由가 同盟國의 再起防止에 目的이 잇섯든것과마찬가지로、經濟的價値는勿論 일측 비스맑으로하여금『보헤미아를 支配하는者는 歐洲를 支配하는者』라고까지 喝破케하야 그軍事的價値는 체코의 死命을 制할수잇는 이地域을 獨逸에게 放棄할까닭도업슬것은 또한 分明하다。

四

그러나 아모리 經濟的 軍事的價値로보아 이것을 放棄할수가업다하드라도 그地方의住民의大部分이 獨逸人이오、나치스運動擡頭以來 주데텐獨逸人의 政治的信條도 놉하저 체코政府와의 對立狀態를 示하게된 今日에 잇서서는 체코政府도 主權의 放棄나 獨逸의 進出은 容認치못한다하드래도 그地方住民의 意思는 無視하지못할것이다。체코政府가 往年에 秀衡同盟政黨과 協定을 締結하고 今春에少數民族法制定案을 提出하야 妥協工作에 나선것과 英佛의 自治賦與에關한 체코政府에의 勸告等도 이러한 根據가 잇는것이다。이러한 難局을 開拓하야 今回의 突發事件과合하야 아모리 주데텐獨逸人이 하고저할지라도 實力이업는限이는不可能한일이니 今後의問題의 解決은 오직獨逸態度如何에 依存한다고할수잇다。그러나獨逸이强硬態度로 臨한다하드래도 全民族이 獨逸人이아닌 체코의 境遇에잇서서는 戰爭은 不可避이며、체코는 佛蘇와 相互援助條約으로 聯繫되어잇스며 英國도 체코問題에 對해선 獨逸에 同情的으로 [illegible] 取하지안흘것이 明白하므로 체코에對한 武力干涉은 歐洲戰爭勃發을 意味하는것이다。그러면 伊太利의 側面的援助만을 밋고 列强을 相對로 戰爭을하여서까지 나치스獨逸이 체코征服에 나서겟는가? 체코人의 反獨決意와 列强의反對가 잇는以上 [illegible] 口實을 주는 機會 [illegible] 자는 目의 [illegible]하야 [illegible] 하엿다

敵精銳抵抗排除코 蘭封城에突入
○○部隊城內掃蕩中

【濟南廿三日發同盟】蘭封을 攻擊中인 ○○部隊는 二十二日夕 同城에 突入하야 目下城內를 掃蕩하는中이다 即○○部隊는 二十一日부터 蘭封杞縣間을連하는 堅陣楊堌集을突破進出하야 二十二日 마침내 蘭封西方十六粁의 地點에서 蘭封、開封間의 鐵路及道路를 完全히 遮斷하고 다시 鋒을 東方으로 急轉하야 同日夜蘭封城攻擊을 開始하고 唐慌한敵은 開封東으로부터 約八百의兵으로 我背後로부터 急襲하여왓스나 我反擊으로 擊破되고 蘭封城內에잇는 中央軍第二十六 第四十六 第八十一各師의 精銳는 銃砲戰車로써 必死의抵抗을 試하엿스나 我軍은 東西로부터 猛銳火를퍼부어 午後逐次城壁에 迫하야 同夕刻마침내 城內에突入 다시城內를 掃蕩하는中이다 蘭封의命脈은 全然制壓되고 開封 鄭州의西部隴海線의 敵重要據點도 바야흐로 我猛威下에直面하게되엿다

政友會首腦部 懇談會開催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二十三日午前中에 代行委員會에繼續하야 午後零時半부터 芝三緣亭에서 總裁問題에關하야 首腦部懇談會를 開催하고 四代行委員 總務、幹事長 政務調査會長及芳澤顧問以下 各顧問出席 午餐을 함께한後 懇談에 드러가 二十日의 顧問會議에서『速히 總裁를 決定할일』의 協議에 對한 回答으로서 別項과가티 代行委員會一致의 意見으로 速히 總裁를 決定하도록 一致協力하야 實現에 邁進할旨를 述한바 顧問側도 이를 諒解하고 다시여러가지 希望的意見을 開陳하야 隔意업는 意見의 交換을 遂한 後 午後二時散會하엿다

大迂回作戰으로 蘭封方面敵罔知所措

【石家莊二十三日發同盟】蘭封을 攻略하는 ○○部隊는 敵의 虛를 衝하야 二十二日突然剛膽果敢한 大迂回行動을 이르켜 蘭封西南方으로부터 西方에 進出하엿다 防禦의 重點으로 이方面에 全力을 傾한 敵은 이迂回作戰에 唐慌하야 陣容을 再建하고 目下抵抗을 繼續하고잇다 我軍은 東、南、西의三方面으로부터 城壁을 指目하고 進擊하는中이다

【石家莊二十三日發同盟】蘭封에 依據한 敵은 中央軍을 根幹으로 이에雜軍을 配하야 六個師總數約八萬 그리고 戰車砲、裝甲自動車等을 가진支那軍으로內容은 充實한 部隊이며 中央軍은 蔣介石의 嚴命과 我方의 退路遮斷으로 斷末魔가 되여 城壁에 依하야 抵抗을繼續하고 잇다 이에 反하야 雜軍은 督戰隊의 監視로 겨우抵抗하고 잇는데 機會가잇스면 活路를 求하야逃走하려하고잇다 即我方은 東西南三方面으로 包圍態勢를 整備하고잇다 敵은이間隙을엿보아 脫出하려고 到處에서 戰鬪를 行하고잇다 二十二日午後五時에도 敗殘兵을 裝甲列車에滿載하고 開封에向하야 我線路遮斷地區를 단숨에突破하려고 危地에뛰여드러 殲滅當하엿다 完全包圍에陷한 敵은 바야흐로脫出의一途를 求하야 最後의努力을 繼續하는데 命脈은 이미朝夕으로 切迫되고잇다

政友會定例 代行委員會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芝三緣亭에서 定例代行委員會를 開催하고 鳩山、前田、島田、中島四代行委員及 島田幹事長出席 二十日顧問會議席上에서 이러난 總裁問題에對하야 意見을交換한 結果 俄然總裁를 選任하야 黨狀을安定시켜 更生을 期하기로意見이一致되엿다 來二十五、六兩日에開催할 支部長會議의 直後 다시代行委員의 會合을 開催하고 總裁就任에 關한根本方針을 決定하야 其深甚考慮를 進捗식히기로 一決하엿다 그리고 席上에서 島田幹事長은 何人이 總裁의 任에當할지라도 擧黨一致의 原則下에 結束하야 協力을 鞏固히 하게안호면안될 다 이에

蘭封口를占領

【○○廿三日發同盟】蘭封을攻略하는 我軍의 井上、臼田兩部隊는 二十一日 午後四時 蘭封의 西南方 二十四粁線을 占領하고 二十二日 午後三時에는 西方十二粁의 羅王驛附近까지進擊、二十三日午前八時半에는 六粁의蘭封口를占領、敵은 目下 西方으로 潰走하는中이다 羅王驛의 戰鬪에서는 我軍은 敵의 機關銃二、貨車七十一輛、石油九十罐 米一千袋 手榴彈三百 速射砲彈一千發 被服三百七十箱其他無線電話石炭多數를 鹵獲하엿다

敵軍長을捕虜

【北京二十一日發同盟】我追擊隊는 二十日夕刻宿縣東方地區에서 第二十二軍長譚道源以下를 捕虜로하야 凱歌를 高唱하다 徐州以東沂州 台兒莊의敵은 前線으로부터 退却하고 龐炳勛 張治中 湯恩伯 關麟徵 鄧錫侯 孫連仲其他將領도 身勞가 초라하게 江蘇、安徽省北方地區를 彷徨하고잇는바 近近我包圍網에걸려 捕捉殲滅될것으로 觀測된다

寫眞 上 皇軍의徐州入城 下 激戰後의徐州市街

大包圍殲滅作戰
漸次完成段階에接近

【上海二十三日發同盟】徐州東方及南方地區의 包圍作戰은 我軍의 果敢한 行動으로 急速히進展되여 徐州로부터 東南으로敵을 쫏차 進擊한 ○○部隊는 二十三日閔實集으로부터 南下 爽溝集東側의 敵을 淮河線에 壓迫하야 이를 거이捕捉殲滅中 一方津浦線西南地區에 잇는○○及○○兩部隊는 明里店及婁東集附近에서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北方으로부터 몰려온 敗敵과對戰하야 이를 全滅시키고잇다 永城方面에 脫走한 小部隊를 除하고 徐州東方及 南北의 殘敵은 거이이를 完全擊破하야 大殲滅戰은 거이其目的을 達成하고 바야흐로 完成의 段階에 接하고잇다

【北京二十二日發同盟】徐州서敗走한 數十萬의支那軍은 東南方及西方으로 潰走의途를 發見하려고 右往左往하고잇는바 各所에서 我軍에게 急追捕捉되여 敵은 全滅의運命에 陷하여잇는바 二十二日의 戰況은 如左하다

一、西隴海線地區蘭封附近에서 我軍의 制壓下에 全滅의情勢下에잇는 支那軍에對하야 我軍은 漸次이를 包圍하는中이다 그리고 同方面의人民은 多年蔣政權의 秕政으로 苦痛을맛고잇는바 黨軍의潰滅과 無力함을 實際로보고 只今이야말로 桎梏을 脫出할時機라고하야 各地에서 反國民黨運動이擡頭하여잇서 開封南方通許縣에서는 人民의손에依하야 國民黨勢力을 確立하엿다

二、碭山附近에서는 二十二日朱中(碭山西方五十里)에서 大砲를가진 六百의敵이 我軍에依하야 擊滅되엿다

三、徐州東南方地區에서 我軍은 各地에서 敵을攻擊殲滅中인바 飛行機의 偵察한바에 依하면 敵의一部는 我後方運河의線附近으로부터 南方으로退路를찻고 敵一部는 宿縣으로부터東南方으로 退却中이다 그리고大多數는 退路를잃코 混亂狀態에 빠저잇다 二十二日은 徐州南東方百二十里되는 黃山麓에서 約一萬의 敵이 我軍에依하야 擊破되여 遺棄死體二千을 남기고 敗退하엿다 이地區에서 我軍의 鹵獲은 各所에 山積되여잇는바 我軍은急追에 急追를 거듭하야 善後處置에 忙하고잇다

四、北方으로부터 追擊하야 徐州城으로 入城한 我○○部隊는 二十二日 城外地帶의 殘敵을 到處에서 掃蕩中이다

徐州東方平山頭서 敵軍數千을殲滅

【北京二十二日發同盟】隴海線以南의敵을 西南方에急追中인 我○○部隊는 二十一日午後平山頭(徐州東方約十里北方地點及東北)地區에잇는 五千及二千의 敵을 攻擊하야 이를潰亂식혓다

獨總統軍事顧問召還

【香港二十三日發同盟】當地外人側에入電한바에依하면 히틀러總統은 支那軍事顧問 프라친·하우젠以下에 對하야 速히 本國으로歸還하라는 嚴命을 發하엿다

蘭封陷落目睫間
皇軍城壁에據하야敵과交戰中
陸荒鷲開封、黃樓爆擊

【石家莊二十三日發同盟】蘭封攻略部隊는 二十二日에 蘭封附近의 殘敵을 [illegible] 附近의殘敵은 어미[illegible]으로 我軍의完全 [illegible] 中之敵가될 城外의 中央軍은 [illegible] 二十一日夜 [illegible] 二十二日早朝 [illegible] 하엿다 이때 城內의中央軍은 [illegible] 城壁에 據하야 頑强抵抗을 繼續하는데 이에 反하야 [illegible] 雜軍은 [illegible] 中央軍督戰隊에게 [illegible] 不得已 抗戰하나 逃亡의 機會를 엿보고잇는 現狀으로 蘭封의 敵은 이미內部的으로 [illegible]

【濟南二十三日發同盟】○○飛行隊의 一部○機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頃부터 蘭封附近의 敵의殘兵을 爆擊하야 停車場及城內에잇는 二十數輛의列車와 重要線에 爆擊을 加하야 多大한損害를 주엇다 또他의數機는 開封東南地區에잇는敵의 第八、第九兩師營附近에 集結中인敵軍輸送列車를 爆擊하고 西南地區黃樓附近에서 敵集團을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그리고 敵은小銃으로써 抗戰하엿스나 我方에損害는업섯다

徐州南方 山岳地帶의殲滅戰

【○○廿二日發同盟】南北兩軍包圍下에 磊山、湖山、打虎山、靑龍山等의 徐州南方山間地帶에 逃走한 敵은 [illegible] 二十一日夜 [illegible] 하엿든 我○○部隊는 [illegible] 다시廿二日早朝 비가개인틈을타 山麓으로 潰走하는 敵을 午前九時頃에 大體同地域의 掃蕩을完了하엿다

蘭封敵軍 步調不一致

【石家莊二十二日發同盟】蔣介石은 蘭封陷落으로 바롯影響이 極히 甚大하므로 殘存된 最後의據點 [illegible]

蘭封의退路遮斷

【石家莊二十二日發同盟】蘭封攻略部隊의 一部는 二十一日夜 蘭封西方地區로進出 隴海線을制壓하고 敵의開封에로의退路를 遮斷하엿다 또一部는 蘭封의南方及西南方으로進出한 그때 戰車四輛을가진敵二千과 遭遇한바 戰車三輛을鹵獲하엿다

蘇聯兵一小隊
滿領에不法越境

【新京廿三日發同盟】二十二日夜 綏芬河南方滿蘇國境에서 蘇聯兵一個小隊가 滿洲國領內數百米에 不法越境하여온것을 監視中인 日滿軍이發見하고 即時이를攻擊 國境外로擊退한事件이잇다 滿洲國政府는 蘇聯側에 嚴重抗議를發하엿다

寺內、畑兩指揮官
近近戰捷地에서會見

【北京二十三日發同盟】我南北兩軍은果敢한追擊戰으로 數十萬의敗敵을 殲滅中인데 이 徐州會戰에서 스사로 前線에 出動作戰指導에 當하고잇는 寺內北支、畑中支兩最高指揮官은 南北兩軍共同作戰의成果로 攻略한 戰捷地에서 近近歷史的會見을 遂하고 今後指導方針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기로되엿다 南北兩最高指揮官의 握手는 戰史上前例업는 空前의 盛儀로 日本의 威武를 中外에 顯現하는 光輝잇는것으로 되여잇다

(寫眞上 寺內最高指揮官 下 畑最高指揮官)

辭令

昭和十三年五月廿三日附

發令 (朝鮮總督府)

東京帝國大學助手 安藤 則秀
(各通)
任總督府水原高等農林學校教授(七等)
西田 司一
朝鮮公立中學校教諭 藤木 圭一
任朝鮮公立中學校教諭(七等)
補東萊公立中學校教諭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 丹生 正夫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七等)
補釜山公立高等女學校教諭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 立山 重壽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七等)
補釜山港公立高等女學校教諭
朝鮮公立實業學校教諭 杉原富次郎
任朝鮮公立實業學校教諭(七等)
補晉州公立農業學校教諭
朝鮮公立中學校教諭 北島 一枝
任朝鮮公立中學校教諭(七等)
補群山公立中學校教諭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 白石 勉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七等)
補群山公立高等女學校教諭
總督府水原高等農林學校助教授 一色於菟四郎
任總督府農事試驗場技師(七等)
總督府師範學校教諭 桑田 隆人
任總督府師範學校教諭(七等)
補京城女子師範學校教諭
朝鮮公立實業學校教諭 中村 嘉一
補元山公立商業學校教諭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兼朝鮮公立實業學校教諭 菊地 武久
免兼官
總督府遞信技手兼遞信技手總督府平安北道技手 高宮 美隆
任總督府遞信技師(七等)
總督府慶尙北道屬兼本府遞信書記 池崎 鷹太
任總督府道理事官(八等)
命慶尙北道在勤
朝鮮道立醫院醫員 林川 聰
任朝鮮道立醫院醫官(七等)
命全羅南道在勤
谷山 幸男
任朝鮮道立醫院醫官(六等)
命京畿道在勤
朝鮮土木技師 井戶川林道
補黃海道土木技師
遞信技師 庄司 新治
兼任總督府遞信技師(六等)
遞信技師 渡 輝雄
兼任總督府遞信技師(七等)

夕刊後市況 廿三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五五	三·三四
釜山	—	—	三·三八
群山	三·七	三·〇〇	三·三二
木浦	—	—	三·三二
下關	—	—	三·四六
名古	—	—	三·五四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棉花	—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illegible]

中央公論 六月號

當面日本文化の綜合的研究
日本文化、動くもの動かぬもの 廣濱嘉雄
知識階級に與ふ 三木淸
愛國心の問題 大熊信行
轉換期の知性 中島健藏
現代日本の科學の爲に 小倉金之助
知識階級と環境 淸水幾太郎
戰時文化の態樣 杉山平助
傳統文化と現代文化 長谷川如是閑

徐州戰に續くもの・吉岡文六
平沼騏一郎論・膳武太夫
相撲有感・望月圭介
豚木散華・澤田信太郎
續・三太郎・正木不如丘
無想庵の惱み・武林無想庵
北極探險報告・パパーニン
近代女性の服裝・今和次郎
野球のジンクス・サトウ・ハチロー
嘉納先生と私・藤生安太郎
ソ聯の强味と弱味・淸澤洌
英國と猶太人問題・瀧田鍊太郎
「勘」を語る・飯野季彥
機械美論・伊東裕義
文壇的自敍傳・正宗白鳥
大和民族の將來・高岡熊雄
斷種法と世界觀・小野淸一郎
國家總動員へ・山之內二郎
戰時下の勞働問題・美濃口時次郎
東京だより(新設)

特輯 傷病兵の諸問題 本庄繁・田中[illegible]・鈴木信・田村誠之 (解決への示唆・諸家)

權威・新明正道
革新イデオロギー・龜井貫一郎
三浦梅園の示唆・三枝博音
ソヴエート市民生活・丸山政男
政局不安の解消・馬場恒吾
北樺太植物談・岡田要之助
仁義風土記・佐藤垢石
王克敏漫訪記・堤寒三
ドナルドを曝く・エリストン
映畫企業裏道・古川良範
街の人物評論 根岸寬一・上司小劍・中村福助・前田山
原敬・原奎一郎
勳章の話・神崎淸
ゲリラ戰法論・佐藤堅司
クレーギーとピゴット・平一平
モルガンお雪夫人・木村毅
日本よ何處へ・プライス

懸賞參千円原稿募集 詳細本誌參照

(小說)
靈あらば・芹澤光治良
杜鵑・林芙美子
朝の草・武田麟太郎
花冷え・久保田万太郎

長期戰下の諸問題・尾崎秀實

朝鮮의 總人口 二千二百卅五萬名

[昨年末 現在]

比前年約四十萬名이 增加

소화십이년말현재의 전조선 호구조사의결과에대해서 총독부에서 집계(集計)한바에의하면 인구총수는 이천이백삼십오만오천사백팔십오인이오 총호수는 사백이십이만칠천백사십칠호로 전년말에 비하야 인구에잇서서 삼십팔만칠천백팔십팔인 호수에잇서서 사만팔천백칠십팔호의 증가를 보이고잇스며 총인구의 내역은 다음과갓다.

▲總人口 二二、三五五、四八五
男 一一、三五二、〇五六 女 一一、〇〇三、四二九

▲內鮮人並外國人別
朝鮮人 二一、六八二、八五五
男 一〇、九九七、四三二 女 一〇、六八五、四二三
內地人 六二九、五〇七
男 三二二、四〇九 女 三〇七、〇九八
外國人 四三、一二三
男 三二、二一五 女 一〇、九〇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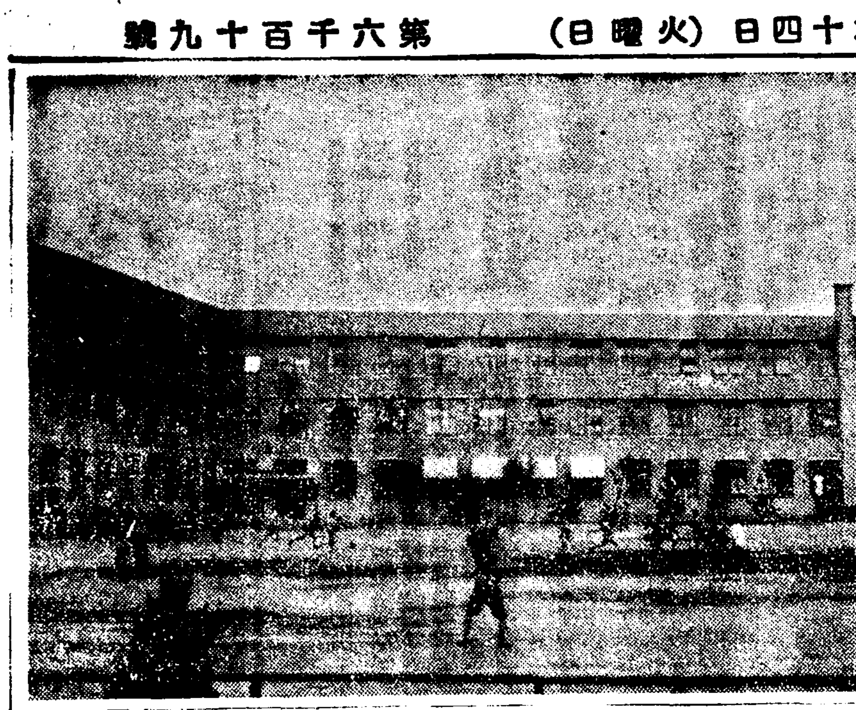
▲各道別
京畿 二、四五七、九四七
忠北 九〇八、七九二
忠南 一、五〇四、七〇八
全北 一、五五二、二四九
全南 二、四五七、七八六
慶北 二、四四九、一〇〇
慶南 二、二二四、二八三
黃海 一、六六六、九八七
平南 一、四七〇、〇二八
平北 一、六四二、七四一
江原 一、五四四、二〇三
咸南 一、六三四、八五五
咸北 八四一、八〇二

新舊府域의 約二割 清掃設備가 缺如

都市體面上放置는不可라고 府當局補助金支出키로決定

지난 소화십일년부역확장이래 경성부는방대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야 날로 발전하여가서이제 전국의 육대도시의 하나에까지 진출하고잇스나 그대발전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표면에나타나지안흔 암흑면이 만흔데 이번 경성부청소과(淸掃課)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십사만사천여호의 전호수의 이할에가까운 권솔이사는 경성부내에 변소(便所)업는집과 잇서도 일홈뿐인 불완전한집이 총호수의일할칠분에 달하며 쓰레기통업는집과 불완전한집이 총호수의 이할삼분에 달하여잇는 놀라운 사실이판명되엿다

즉 부내 십사만사천호중에 아주 변소업는 집이 구백사십사호이고 변소가 잇서도 이름뿐으로 불완전한 집이 이만사천사백이십오호로서 그 합계가 이만오천사백구호에달하야 전호수의 일할칠분이고 쓰레기통업는집이 이천구백오십삼호이며 불완전한집이 삼만삼천삼십사호에달하여잇다 변소가업고 또는 불완전한 이만오천사백구호중에 이를 개선할 자력이 전연업는 호수가 천사백이십삼호이고 쓰레기통업는집과 불완전한자 삼만삼천삼십삼호중에 개선할자력이 업는것이 칠천이백팔호나된다 이러한집은 특히 시외인 동부(東部)의 빈민부락에 제일만코 그다음이 서부(西部)가 되여잇는데 부민위생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잇는 이변소와 쓰레기통의 결여상태를 조사한 경성부에서는 금후 다액의 보조금을 각 정회(町會)를통하야 지급하여서 이를 개선하도록하는동시에 공동변소(共同便所)와 공중변소도 증설하야 부민생활에 업지못할 필수설비의 결여극복에 노력하게 되엿다



壽松小學落成式 二十五日에擧行

재작년가을에 화재를맛나 오유(烏有)로 되엿든 부내수송공립심상소학교(壽松小學)의 교사는 그동안 신축중이엇든바 드듸여 그공사가 준공되엿슴으로 오는이십오일 오전열시부터 그학교교정에서 락성식을 거행하게되엿다 (사진은 준공된수송소학교)

朴烈의 更生과 內鮮一體美談

四人들이 感激獻金

옥창속에잇는 박렬(朴烈)과 제일선용사들사이에 버러진 내선일체(內鮮一體)와 군국지정(軍國至情)의 감격미담이잇다 관동대진재당시에 세상을 놀내이게 한대역범인 박준식(朴準植)일명 박렬(朴烈)은 소관형무소(小菅刑務所)에서 복역중 황은과 교화선도에의하여 개생하여 금번사변에 출정용사들의 용감무비한 대활동에 감격하여 분연히 폐하의 적자가되라고 수양개생에 전력을다하여 일반세인에게 다대한감동을 주고잇섯는데 그후에 이보도가 상해에서 활동중인 해군륙전대 죽하방공부대(竹下防空部隊) 고사포중대 일등병이 이소식을듯고 직시진중에서 군사우편으로 박렬에게 『동양평화를위하여 싸우고잇는 우리들은 박군의개생을보고 대단히 감격하고잇다』는 편지와 위문대에써잇는 반도아동의 위문품을벗기여서 동봉하고 금오원을첨부하여서 『긋즌맛잇는 음식을 사서먹여주시요』써서 경시청에 보내왓다 경시청에서는 직시사법보호관을 통하여 박렬에게 편지를 전하엿는바 박렬도감격하여 이선물을 자기혼자가질 수업다하여 내선일체의 강화사업에써달라고 신고하야왓슴으로 소관형무소 재감중의 오십여명의 반도인을비롯하여 내지인재감자도 참가하여 백수십명이 박렬에게보내온 금오원을 기금으로하여 이백십팔원십전을 내여서 내선일체의 사업자금으로 써달라고 헌납하여왓다 사법성에서는 지난번 사법보호회에 참석하엿든 총독부 궁본(宮本)법무국장에게 상세히말하고 이돈을 [illegible]

東北關東地方等에 廣範圍의 地震感應

震央附近에는多少被害豫想

【東京電話同盟】이십삼일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발표=금일오후 네시삼분경에 동북지방(東北地方) 관동지방(關東地方) 중부지방(中部地方)에 걸처근래에 드문 대규모의 지진을감지(感知)하얏다 가장 강하게흔들린곳은 복도현(福島縣) 자성현(茨城縣)등으로 진도(震度)는강진정도이어서 가옥이 몹시흔들엿고 사람이 밧그로 뛰어나가는 정도이엇다 진원지는 복도현어옥(?)(靈屋) 우로해상으로아직 상보는 업스나 진앙(震央)부근에서는 다소의 피해가 잇지안흘가염려된다

▲强震 福島 足尾 小名濱
▲中震 熊谷 甲府 宇都宮 鉛津
▲弱震 東京 銚子、山形、酒田 函館
▲輕震 沼津 秋田
▲微震 岐阜 高田 富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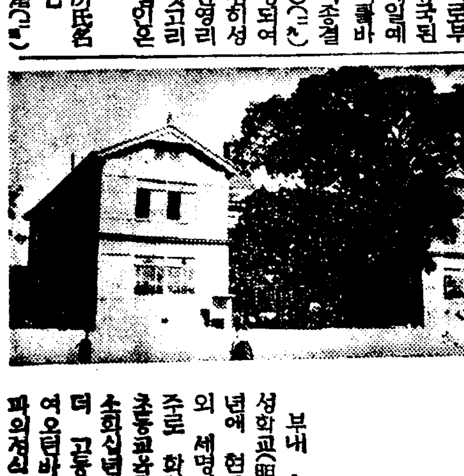
福島의 被害

【福島電話同盟】진원지라고보든 복도지방에서는 전등회사의 송전선이 거의끈허저 송전중지상태에빠젓다고 개와장이 떨어진 곳도적지안흔데 지금가태서는인축에 손해는 업는모양이다。

李載裕의 傍系인 一黨十名公判에

적색거두 이재유(李載裕)의경성준비『그룹』파 연결되어 소화십일년 십이월 종로서에 검거된 김희성(金熙星)(三一)외열명의 소위『콤·그룹』사건은 이그룹의『오르가나이자-』격인 김희성 백윤혁(白潤赫)(二七)등이 국제공산당대회에서 결정된 인민전선(人民戰線)전술의『테-제』를 기본원칙으로 용산철도공장에 잠입하야 동지를획득코 활동하던 사건으로 작년사월하순 치안유지법위반 영리유괴 사기 범인은닉의 죄명하에 종로서로부터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국된후 그간엄중한 취조를 바다 심게소림(小林)판사의 심리를 밧더오든바 이십삼일 예심이종결되는동시에 권태규(權泰圭)(二九)외 불제한열명은 유죄로 결정되여 공판에 회부되엿다 도한강영리병희(李丙禧)(三一)에 대한영리유괴와 사기만은 면소되엿고 리종덕(李鍾德)(二?)에대한 범인은닉의사실도 면소되엿다

公判回付者 住所氏名
▲京城府黃金町五丁目一七七 無職 金熙星(三一)
▲京城府嘉會町四〇 無職 白潤赫(二七)
▲京城府桂洞町 京城放送局員 朴仁善(二?)
▲京城府明倫町三丁目一六 鐵道局京城工場機械工 崔秉稷(二?)
▲平南大同郡大同江面新里一 牛骨肥料組合事務員 李鍾德(二?)
▲京城府西界町二二三 京城電工 尹淳達(二?)
▲京城府興國町九 勞動 朴寅楠(二?)
▲京城府寬勳町二九 無職 朴 涵(二?)
▲京城府永登浦町 龍山工作所職工 文甫培(二?)
▲京城府淸凉里町八八 無職 李丙禧(三一)
▲慶北奉化郡春陽面宜陽里四〇二 精米業 權泰圭(二九)(免訴)



고달픈晚年

본적을 경기도안성군(安城郡)에 두고 시내신공덕정(新孔德町)삼십칠번지에사는 이춘덕(李春德)(六六)노인은 무의무탁한몸으로 자식도업시 품파리를 하여 지내오다가 최근에는 노쇠해지며 노동판에서도 써주지를 안어 버리도 변변히 못하고지내다가 굼주림에 못견듸어 이십삼일 오후여섯시경에 고시정(古市町) 사십삼번지 음식점『사이다』에 가서『캬라멜』한개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견되어 용산서(龍山署)에 검거되엿는데 취조한 경관도 그노인의 애달픈처경에 동정하여 눈물을흘리지안흘수업섯다한다

明星高等科 正式認可下附

家政女學校設立도計畫

부내 수송정(壽松町)에잇는명성학교(明星學校)는 지난소화육년에 현교장김수선(金水先)여사외 세명의 힘으로 설립된이후 주로 학령초과아동을 수용하야 초등교육을 실시하여오며 지난 소화십년에는 당국의 양해를어더 고등과(高等科)까지 설치하여오던바 이번명성학교에서는 고등과의정식인가가 지난 십팔일부로 나와다고한다 이와동시에 박우영(朴宇榮)씨를 이사장으로하는 명성학교후원회가 조직되여 삼개년 계획으로 명성가정여학교(明星家政女學校)설립계획을세워가지고 착착 그실현에 매진하게 되엿는데 이번에 인가된 학교를 위하야 일반의 만흔동정과 후원이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사진은 명성여학교)

捲土重來의 藝術聖戰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九月中旬…… 申請期日……九月五日
曲目……二曲을演奏하되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一曲은隨意로함
【聲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베르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베르트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 No. 4 (作曲九〇)=슈베르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1樂章=로-데
【譜表】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한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褒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쿨賞을授與함
審査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戀慕"가 突變"夜叉"

짝사랑하는처녀의 침실에서들키자강도행세

傷魂靑年에게 七年役求刑

동리처녀에게 반하야 밤중에 여자의침실까지 뛰여들어갓다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들키자강도로 표변하엿다는 강원도원주군 흥업면흥업리(原州郡興業面興業里) 유병도(尹炳桃)(二?)에 관한주거침입강도상해피고 사건의 공판은 이십삼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사천(寺川)재판장심리 행삼(行森)검사관여로 열리엿는데 사건의내용은 피고는 짝사랑하든 그의딸 조옥(?)(?)의 이불을 더듬다가 어 사람이니 『돈을내라』하며 옥신각신하다가 만년필촉으로 이기용의가슴을 찌르고 도망하엿든 사건이라고한다 [illegible]

스포-츠

時有欣愛使不見 感心迷婆自作痴 諸天兩樂勸加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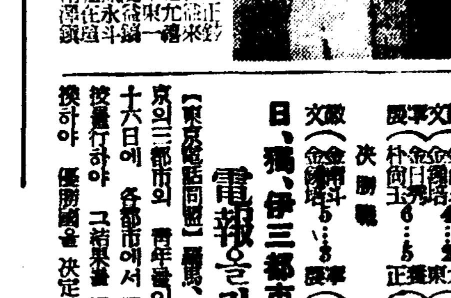
세워나고 [illegible]

中等庭球에 徽文優勝

寧邊農業惜敗

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의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選手權大會는 二十三日 午前十時半부터 京城運動場AB兩코-트에서 京鄕各地에서 參加한 六十二組의 熱戰으로 열리여 最後決勝에도 [illegible]

[illegible]



電報올림픽 日、獨、伊三都市

【東京電話同盟】羅馬、伯林、東京의三都市의 靑年團이 六月二十六日에 各都市에서 同時에 競技를行하야 그結果를 電報로 交換하야 優勝國을 決定하자는 [illegible]

滿洲國籠球今日入京

滿洲國籠球團一行十四名은 監督山中、마네저 黑田兩氏引率下에 今二十四日午後三時二十八分 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야 龍路靑年會館코-트에서 明二十五日午後五時半부터 醫專과 對戰할터이라하며 二十六日午後五時半에는 延專과 對戰할터이라한다

對醫專蹴球戰에 齒專軍快捷

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의 春季리-그戰…齒專對醫專戰은 二十三日午後五時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韋恩德氏審判下에 齒專先蹴으로 開始되바 兩軍接戰끄테 結局一對零으로 齒專軍이 得勝하엿다

齒專1 (1…0 0…0) 0醫專

龍中8 京商3

京城中等學校野球聯盟主催의 今年度野球리-그戰第一日의 京城商業對龍山中學戰은 二十三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古賀(球)田代、佐田(壘)三氏審判아래 龍中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 八對三으로 龍中軍이 大勝
京商 000300000 3
龍中 40010003x 8

今日의運動

▲蹴球=學生蹴球聯盟主催春期리-그戰 大豫對世專(午後五時大豫球場)觀覽無料
▲野球京城實業野球리-그…殖銀對鐵道二回戰 午後四時半京城球場 觀覽料=네트後面四十錢、一般廿五錢、學生十錢

총딱

얄밉다 얄밉다하여도 친절을강요하는것처럼 얄미운것은 업을게다 좀뻔뻔한처자를 라고서 겨우자리를잡고안잣노라면 대개한두명의 우리꼬마들이 특히 부인네들이 허둥지둥하고자리를찻게된다▲들은이와 부녀자를 우대하는것은 거지상식화된 우리네도 터이라 안젓던 학생청년들이의레히 이러서서 그자리에안게하는것까지는 조흔데▲이러케친절하게 자리를 비켜주엇거던 『고맙소』한마디쯤이야 아무리 무식한 부녀자나 늙은이래도잇서야만할것이 아닌가 당연한 권리나 차지한드시 생각하고시치미를 떼는데▲특히 이러한 친절을 외국사람이 하엿슬때에 그광경이란 참 딱하다 ▲심한것은 업는자리 안주는 자리를 비비대고 안즈려들며 친절을제공하기실혀하는사람에게까지 친절을 강요한다▲이것을모두 살펴이궁하고 배우지못하고 그러니까 체면을모른다고만 돌려버릴수가잇나?각가정의 부인네들과 노인들!충고할것은업지만이러것쯤은 알어둡시다。

曆

▲五月二十四日(火曜)陰四月二十五日 ▲干支 丙辰 ▲日出 五時十八分 ▲日入 七時四十二分 ▲日南中 十二時三十分六秒 ▲月出 一時三十四時二十四分 ▲月入 十三時五十四分 ▲滿潮(仁川) 十二時十五分

新發賣
히고·强한 이를만드는
資生堂中煉齒磨
國策에相副한齒磨
精選된 粉末原料에適當한 濕度를 加한 滅菌作用이强한 藥劑를添加해잇는故로 粉末이 飛散할念慮가 업고 琺瑯質을損傷치안코 口中을 完全히 淸掃하는同時에 齲齒를豫防하고 自然의光澤엿는 强壯한이를만들고 또한 香味가極히佳快湯茶等의味覺을 조곰도 損치안슴니다
十五전
SHISEIDO GINZA TOKYO

志らが赤毛染
るり羽
곱고숫한黑髮!
生生한 젊음과어여쁨
이야말로 るり羽 가가진魅力
特長
一、洗髮할수잇고 藥으로된계湯에녹고
一、洗髮할수록色艶이더하고
一、옷깃과베개를더럽히지안코오래가
一、日本髮洋髮어데나조코
一、가장쓰기조흔染毛劑
(全國藥店에잇습니다)

굉장한大評判!! 美人과 歌謠
最新 映畵スター大寫眞集
저말로 만한 美人의 大寫眞! 映畵界에빗나는 人氣花形들 新刊二頁大의 寫眞 시고스라 1인의 年齡·住所·趣味 잇는 身元調査 附 大番附 一組와
最新 流行歌 民謠全集 美本二冊一組
右大評判의 寫眞集과 美本二冊을 合해서 發賣記念 大宣傳을 위하야 四錢切手七枚보내면 即送함
東京市九段三ノ一 靑年 [illegible]

코나뿐사람
手術하잔코아도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illegible]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ヤパパンモア 야파파몬아
藥用クレーム
洗顔할수록이뻐지는
粉末 パパヤ洗粉
ヤパパンモア 一號一圓五十錢 同 二號(强度)二圓 パパヤ洗粉 四十錢 見本進呈 三錢切手封入 요시십수해込申

아름다운 피부를 키우기 위해 오랜 전통을 가진 대화민족의 특허 상품, 효과가 뛰어남 — 統後大和民族의 相乘强化에 ...
東京市神田區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여드름·죽은깨·기미·업생

平壤 大小宴會並婚禮披露 府新公會堂食堂
電二二六七番
和洋定食·一品料理·丼物·折詰·辨當·御壽司 (注文은遠近을不拘하고迅速配達) 『ピクニック』に公會堂のサンドヰッチ

間食에는 日ノ丸 아이맛조아 아이조아라
美味營養菓子
日ノ丸
一ケ五錢

中部版

大仁川建設에압서 教育機關을大擴充

‖仁川府會議의決議로써‖ 于先研究會를組織

【仁川】 인천은 아프로 구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려하는동시에 대생산도시의 인천을 건설하려고 백방으로노력을하고잇다 물론구역의 확장은 시대의진전에 비치어 대세의 자연이라하지안흘수업스나 인천이 발전됨에딸아 교육기관도 완비하여야할것은사실이다 그래서 요사이부민의여론이 대두하자 벌써그리한 계획을가지고잇든 영정(永井)부윤은 무엇보다비약한 조선인교육기관을 확충하기위하야 지난이십삼일에 개회되엿든 부회에제의하엿다 이문제는 제이교육부의원으로서 누구나 찬성할뿐아니라 제일부의원도 다수동감을가지고 찬성한결과 결국인천조선인교육기관확충연구회(仁川朝鮮人敎育機關擴充研究會)가 탄생하게되엿다 동회의목적은 대생산도시를 건설하는인천의 장래요소라할수잇는 인적자원(人的資源)으로서의 조선인교육확충연구를 하기로된것이라는데 아프로인천은 대인천으로 잘아갈수록 교육문제도 확충되여 가일층실상부되도록 노력하리라고한다

優良組合員 五名에表彰

【仁川】 기부=인천물산객주조합(仁川物産客主組合)에서는 지난이십일 오후三시부터 곡물협회(穀物協會)두상에서 정기총회를열고 조합장 홍재범(洪在範)씨의 사회가잇슨다음 소화십이년도의 결산보고의건을 부의(附議)하야 만장의 일치가결로 승인되엿스며 영업성적우량한 조합원의 표창을 하다음 다섯시에 무사히 폐회하엿는데 표창된 조합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一等 劉君△二等 金鳳玉 三等 趙濟商會△四等 李聖華△五等 金東洙

交通座談會

【仁川】 기보=경기도 보도연맹(保導聯盟)에서는 부내 학생을교통훈련(交通訓練)에서 구하려는 결의를하고 그자료를 엇고저경전 철도국 기타교통관계방면을중심으로이십칠일오후두시부터 경기도청제일회의실에서 교통좌담회를열기로 되엿다

기에 전기정원으로사기를 당한을 알고 직시인천서(仁川署)에 고발하엿스므로 인천서에서는 범인체포에 노력중이나 범인의행방은 상금오리무중이라하며 일반은 전화주문에는 주의하기바라다고한다

石炭을中途서賣渡

【仁川】 부내항정(港町)사정목에잇는 야구상회(野口商會)의부정홍(鄭弘燮)(二七)은 자기가석탄운반하는것을 기회로 남에게가는것을 자기가 매도코 범행을계획일이엇다 지난이십일 오후두시경에 부내도산정(桃山町)조일양조주식회사(朝日釀造株式會社)에가는 석탄열세가마니(叺)시가 십오원어치를 부내 금곡정(金谷町)모여관에 파리서 소비한사실이 잇다는데 인천서(仁川署)에서는 범인을체포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바 이자는 이러한수단으로 여죄도상당히 만흔모양이라한다

軍務畢役歸還兵 就職斡旋懇談會

廿六日道第一會議室에서

경기도군사후원련맹에서는 군무를마치고 도라오는병사들의 취직알선에 대활동을 하고잇는데 이십륙일오후두시부터는 도청제일회의실에서 시내대공장、회사의간부들이모혀 여기에대한 간담회를 열기로되엿다

溫水市에小火災

【溫水】 지난십삼일오후이시경에 강화온수시장에잇는 장홍일(張興日)집과 유기봉(柳基奉)집사이에 돌연불이 이러나서 일시대소동을이르켯스나 밤이 기펏슴을 불구하고 민활한소방조의 대출동진화로서 약일시간만에 진화되엿다는데 발화원인은 두집사이에 나무를두엇던데서 불이낫스므로 실화인듯하다하며 피해액은오십원가량이라한다

保護會에寄金

【仁川】 부내경정(京町)에잇는풍부상회(豊富商會)주인 오정섭(吳正燮)씨는 교육에다대한 공헌이 잇섯는데 금번에는 부내창영심상소학교(昌榮尋常小學校)의 보호자회(保護者會)에 솔선하야 매년 십오원식 회비를 부담키로되엿는데 동교교장이하 직원과 일반은 그미거에 감사를 마지안는바이라하며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江華司法書士事件 今後一層進展?

吉田法院長來江調查

【江華】 강화에서 처음으로잇는일인 사법서사(司法書士)부정협의사건은 사법관청에서 신중이 조사중인데 일반민중으로는 매우주목중이엿던바 갑작이 길전경성지방법원장(吉田京城地方法院)은 십팔일 지방순찰을한다하고 강화에와서 일반에게 접견을피하고 바로경성법원강화출장소에 드러가서 장시간 조사한바잇섯다한다 이로써 예의문제가 확대되지나안흘가 의심하고잇다 모두 비밀에부치고말이엇는데 길전씨가 귀임한뒤 다시문제는 어떠케전개될는지 흥미를 이끌고 잇다고한다

徐州陷落祝賀旗行列 ―(素砂)―

自稱教員이 거스름돈詐欺

【仁川】 교원이라 자칭하고 거스름돈사기범이 출현―지난이십이일 오후두시경에 부내서경정(西京町)에 잇는 영화소학교(永化小學校)에서부내 신정(新町)에잇는 송포과자점(松浦菓子店)에 전화로 여기는 영화소학교이니 과자일원이십팔전어치를 가저올때 십원짜리이니 거스름돈팔원칠십이전을 가지고 오라기에점원 김종만(金鍾萬)(一八)이가 거스름돈과 과자를 가지고 영화학교정문에 드러서니 삼십사오세되여보이는 청년이 기다리다가과자를가지고오느냐 뭇기에 가지고 왓다하니 내가지금 변소에갓다오는라고 지갑을 사무실에두엇스니 그과자와거스름돈을 달나기에 주니오십전짜리를 다시 내주며 이여페가서 담배를사가지고 사무실로오라하야 전기김종만은 무의코담배를 사가지고 사무실에가니 사무실에는 소사밧게 업기에무르니 그런일이업다

牛價의昂騰으로 業者肉價引上要請

두달동안에牛賣買高約半減 九十業者中五十一名廢業! 警察은對策에苦心中

지나사변관계로 소의 급격한 부족을 느끼게되여 이때문에소갑스작구오르고 소갑시 오르니까 또소고기갑시올리서 일반시민의부억경제에 심각한 공항을 이르키고 잇는형편인데 서민의 타격도 타격이러니와 수육상(獸肉商)이밧는 타격도적지안허 경성시내에잇는 조선인 수육상으로 조직된집성조합(集成組合)가입원 구십이명중에서 영업을계속해나갈수잇슬만한사람은 겨우 사십일명박게는 안되는 형편이고 남은오십일명은가간문을 닷지안흘수업는곤경에 서게되여잇다한다 그래서 집성조합에서는 한근에 칠십전 내지 칠십오전밧는 소고기갑슬 오전식만더올니게하여달라는 청원을 수일전에 소관동대문서에 내여왓슴으로 동서에서는 그진상을 조사하는한편 계원을 동대문밖축산시장(畜産市場)에 파견해서 소의매매상항에대해서 조사를시켯는데 조사의결과 다음과가튼사실이 판명되엿다한다 즉 지난이월과 오월현재를 비교해보면 축산시장에 팔려고오는소의수와 팔린소의수에잇서서 놀이다 약반식줄엇스며 가격에잇서서 약이할여가 오른것이판명되엿다는데 그자세한수짜는 다음과갓다 이월이십오일에 축산시장에온소가 구백사십오두이든것이 오월십오일장날에는 사백십이두바게는 오지안헛스며 그중에서팔리기는 이월이십오일에 유백칠십일두이든것이 오월십오일에는 삼백사십일두밧게는 안되며 시이것을 가격상으로본다면 백관(貫)에 일백팔십사원하든것이 이백십원으로 올럿다한다 그래서 이보고를접한 동대문서에서는 소고기갑슬 이이상올린다는것은 시민의 부억경제상으로나 영양보건상으로나 쉽게허가할일은못되고 그러타고 소갑시사실상이만큼 오른데도불구하고 고기갑을올리지말라고 억울수도업고해서 이문제를놋코 방금두통중이라한다

徐州陷落祝賀會

【金浦】 지난이십일에 김포에서도 서주함락을 축하하기위하야 군내 각공사립학교를중심으로하고 관민합동으로서 성대한 축하식을거행하엿다 군내에서는 당일오후한시부터 신사앞으로 칠백여명의학생과 각단체 관민다수가집합하야 축하식을거행한후 기행렬이잇섯고 밤에는 제등행렬이잇섯다한다

【富川】 소사에서는 이십일 오전구시반에 차이렌에의하야 시내일제히 국기를게양하고 신사에서 오전십일시반에 봉고제를 거행한후 기행렬을하얏다

【長湖院】 전국민이 대망하고잇든 서주함락이 실현되엇슴으로 이십일일 오전열시부터 시민일반과 방공단원 애국부인회원 학교생도등 천여명이신사(神社)에 봉고제가 잇슨다음정오에 축하연이잇섯고 오후두시부터는 기행열이잇섯스며 오후여덜시부터는 제등행렬이잇섯는데 기행열을할지음에는 때마츰 육군비행기 사기(四機)가비래하야 장호원시상공을 삼분간 날지안흐며 기내에서 일장기를 들으고 만세를부르지저 기행열일 일층성황을이루엇다

【楊州】 이번서주함락을 예상하고 미리부터 일반관민이축하행사를 준비중이든바 이십일일에 쾌보를접한 양주군에서는 오후세시부터읍의 정부 신명신사(神明神社)에 각학교및각단체관민수천명이 집합하야 엄숙히봉고제(奉告祭)를 거행하고 이여서 악대(樂隊)를선두로 가장행렬(假裝行列)과 학생들의기행렬로 전승가와아올리 만세성은천지를 진동하는듯 자못장관을이루엇스며 행렬이끗난뒤에 동신사경내에서 관민합동의 축하연을 파하야올려 조군수(趙郡守)의 의미심장한 축사로 끄를맛고 밤에는 정거장광장에 집합하야각색모양의 제등행렬로 불야성을이루엇다

【開城】 오십만대군을 배치하고 사수하려든 서주(徐州)도 충용무비한 황군의공격에 드디여 함락하얏다 개성에서도 이역사적전과를 축하하기 위하야 지난이십일일오전구시 개성신사에서 관민합동으로 전승봉고제를 엄숙히 거행한후 자남산(子男山)광장에서 축연까지 개최하얏섯다 그리고 정오가되자 방호단、청년단、소방조、우편국、부청、애국부인회등 각종사회단체와 중등、초등남녀학교생도만여명이 총동원하야 기행렬이잇섯고 밤에는 내리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제등행렬로 전시가를 일주하며 요소요소에서 만세를 봉창하야 어느때개성안은 불바다와 만세성으로 뒤흔들어노앗섯다

四月中仁川來訪客 十二萬三千名

【仁川】 지난사월중에 인천에나린상춘객(賞春客)수와 인천서 지방으로간 승차인원수를 조사하면 인천역(仁川驛)에 하차한 인원은 이만이천사백구십삼인이며 상인천역(上仁川驛)에 하차한인원은 구만칠천백사십삼인에 인천항역(仁川港驛)에 하차한삼천팔백이십이명을 합하여십이만삼천사백오십팔명으로 전년사월의 칠만팔천구백이십오명에 비하면 사만오천백삼십삼명이 증가되엿다 여기에사월중 화물발송을보면 세역에서 취급한톤(總)수는 구만사천오백십돈으로 전년동기에 팔만팔천륙백사십사돈에비하야 이역시 오천팔백칠십사돈의증가를 보엿다 도착화물은 팔천삼백칠십사돈으로 전년동기에비하면 삼천이백팔십구돈의감소를 보이엿다한다

本報開城支局後援 全鮮音樂콩쿨盛況

一等賞은京城金昌燮君

【開城】 본보개성지국후원과 고려공론사(高麗公論社)주최로 개최된 전선음악콩쿨(全鮮音樂競演大會)은 지난 이십일일밤여덜시반 고려청년회관(高麗青年會館)대강당에서 그막이열리엇다 대망의이날밤 청춘남녀의 음악팬들은 지곳게내리는 밤비도불구하고 물밀듯몰려드러 초만원을 이루엇는데 전영철(全永哲)(名曲) 고마부(高馬夫)(流行歌) 양씨의심판아래 노래는 불려젓섯다 경성(京城)、평양(平壤)、백천(白川)등지에서향토의명예를 걸머미고 이경연무대에나스는십여명의신인아사들의 노래는 다양다재(多樣多彩)한중에도 풍부한성량(聲量)을가추어서 세련된 고율이 장내를서려울제마다 갈채파도친속에 사로잡힌 청중은 박수갈채의선풍을 이르켯다 그리자 동십일시경에야 막을닷고 전기양씨의심판의결과를 발표하얏는데 명곡성악부에 영예의 [illegible] 다음과가티결정하엿다

名曲部 一等金昌燮 二等金璟弼 三等李今龍(以上全部京城)

流行歌部 一等宋元一(開城) 二等元一男(開城) 三等尹一柱(白川)

(寫眞은 콩쿨盛況)

防空講習會

開城署講示室서

【開城】 방공사상의철저한 인식을 주기위하야 오는이십삼일양일간 개성경찰서강당에서는 방공강습회(防空講習會)를 개최하리라는데 연사는 경기도 경찰부에서(末廣) 방공사상에 조예가기픈이를 초빙하야 오전오후로난호아 개최하는데 오전에 여덜시부터 오후에는 두시부터 개최하리라한다

溫水料理店에盜難

【溫水】 강화온수시장에서 지난 삼우일에 김재호(金在鎬)가경영하는 김성관(金成館)이라는요리집에서 동의자벼 절궤에너허둔 돈삼원을 도난당하엿다는데 이게출하는 온수경찰관주재소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人事集會

▲金振放氏(漣川郡守)榮轉人事次本社平澤支局來訪

▲森山清吉氏(振威郡守)新任人事次同上

富川郡教育總會

十年勤續教員도表彰

【富川】 지난이십일에 소사소학교강당(素砂小學校講堂)에서부천군교육총회(富川郡教育總會)와 교원회(敎員會)가 열렷섯는데부천군내공립소학교교원이 거의전부가 모이엿섯다 그리고 군내교육공로자도서동 군내의 십년이상근속교원을 표창하엿는데 수상교원은 다음과갓다

南洞小學校 韓熙隣 素砂北小學校 許洪

ハギレ卸

朝鮮向人絹綿布ハイバー 一二等格安品

◆新開業하시는분은特別御指導합니다◆

在庫品年中豊富

御來店歡迎 商報進呈

大阪市南區松屋町七十八番地 高橋清商店

電話東四一[illegible]番 振替大阪四三[illegible]番

取引銀行 住友銀行島之內支店 安田銀行島之內支店 三和銀行松屋町支店

百日咳에 コデス(고데스)

ツヤミドリ

正宗의名產地馬山

馬山·村崎酒造場

登錄商標 銀河水

銀河水 고무신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里一三七番地 長電話光③一八三七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登錄商標 世界

世界 運動靴

時代에適應한 最新強壯劑

特히一般虛弱 神身過勞

榮養障碍、神經衰弱、腺病質、肺結核、肋膜炎、性的減退、缺落症、病後恢復期、食慾不振에特効

食慾을增進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昂進함

用量 一回四―八錠 一日三回服用

五〇〇錠 四、五〇

製造發賣元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平壤西門通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美味芳佳 服用容易

フェロトン 페로톤

淋疾には

ネオ白檀油に限る 球もあり

類似品あり商標に御注意

總代理店 京城 株式會社 新井藥房

20球 25錢 50球 250錢 100球 500錢

有名한 醫博學士 森田資孝先生推奨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몹시아플때……노―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좃치못할때나

이노―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處賣藥店에도무러보십시요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이商標에注意하시압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 三版發賣中

定價一圓二十錢 送料二十五錢 朝鮮日報社出版部

六十醫學博士御推奨

赤玉ポートワイン

『단것을먹으면疲勞가速히낫는다』고하는데 그것은 糖分이에네루기ー가되는 까닭입니다 糖分中에도 이러한경우에가장優秀한것은 葡萄糖과果糖입니다 『단것을먹으면 胃에조치안타』고하는데 이葡萄糖과 果糖만은 그러치안습니다 葡萄糖과果糖은 胃나腸에何等消化의負擔을안주고 오히려胃를 달래면서急速히 또한 거운 百ー퍼센트로吸收되여서에네루기ー가되는것입니다 에네루기ー가되는 榮養素中이것은 極히優秀純粹한것입니다 良質葡萄酒、赤玉ポートワイン은 이葡萄糖과 果糖이豐富하고 또한 優秀한果實酒精(이것이 또한 疲勞恢復에著効가잇슴) 까지도 含有해잇고 또 風味가快適한故로 마서면 實로 氣分이조케疲勞를恢復시키는것입니다

疲れが心地よく治る

長篇小說

薄命 (6)

韓龍雲 作
鄭玄雄 畵

誘惑 【六】

어느날 아침에는 설악산의 중허리에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들과 마을을 덥는다 순영이는 언제던지 밧매러 가기가 시렷스나 그날 아침에는 어쩐지 속히가고 시펏다 순영이는 어제 만나던 송씨의일이 궁금하엿던 까닭이엇다 순영이는 머리도 빗고 치마만이라도 햇것으로 가라입고 시펏스나 그것은 게모가 무서워서 하지못하엿다

순영이는 아침에 낀 안개가 종일 그대로 잇섯스면 하엿다 그것은 나려쪼이는 볏벼리 너무도 무서운 까닭이엇다 그러나 안개는 얼마아니되어서 술술 거치기 시작하엿다 순영이가 밧매고잇는 그곳을 스케취한다면 어제의 그것과 조금도 달븐것이 업섯스나 다른것이잇다면 다만 동쪽 봉오리의 도라가는 구름이 비 의사를 먹음은듯한 그것뿐이엇다

순영이는 머리를 자주 도리켜서 어제 송씨가 오든길을 보고 보고 하엿다 그러나 한나절이 거의 되도록 송씨는 오지안는다 다만 백담사 길로 조처나오는 늙은중이 시내 건너의 적은길로 가는것을 보앗슬뿐 이엇다 시간이 갈수록 순영의 송씨를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하여진다 그것은 순영이가 송씨 기다리는 까닭을 스스로 구리본대도 꼭 집어서 대답할만한 이유는 조금도 업섯다

순영이가 점심때를 표준하는 솔나무 그늘은 거의거의 어제 그만때가 되어간다 시내위의 우뚝선 바위미트로부터 처음에는 머리만 보이다가 차차 온몸을 나타내며 바쁜드시 오는 사람은 틀림업는 송씨엇다 그것을 본 순영이는 다름질로 쪼처가서 마중이라도 하고시펏스나 다만 일어서서 바라보다가 도로안저서 못본체하고 바를 매엇다 호미끝은 제자리에가 찍히지 아니하고 딴곳을 찍엇다 순영의 손은 호미에 잇스나 순영의 마음은 송씨에게 잇는 까닭이엇다

「에구 너 또와서 바를 매는구나 얼마나 더우냐 나는오늘은 좀일직와서 놀다간다는것이 다른볼일이 잇서서 좀 느젓다」

송씨는 밧고랑에까지 드러서서 숨이 조금 찬드시 말을한다

「예 안녕히 주무섯서요?」

하는 이외에 순영이는 다른말을 더할것이 업섯다 말대답하기 위하야 일어서는 순영의 다리는 벌써 오금이 켱기는것을 깨다랏다

「그래 어제는 집에가서 걱정이나 안들엇니?」

「아니오 아시나요」

하는 순영의말은 자기의 게모가 어제의 사정을 모른다는 의미엿다

「그런데 점심먹을때가 아직 못되엇니?」

하고 송씨는 해를 처다본다

「아직 조금 못되엇서요」

하는 순영이는 해를보지 아니하고 솔나무 그림자를 돌아본다

「그래 오늘은 조금 일직 나오너라 내가 할말도잇고 또 너줄라고 무엇을 좀 가지고 왓다」

하는 송씨는 밧둑으로 나가서 바위에가 안는다

순영이는 아까는 별로 이유도 업시 송씨를 기다렷지마는 지금은 정말 궁금하엿다 송씨가 자기에게 할말이 잇다고 하니 할말은 무슨말이며 또 무슨 먹을것을 가지고 왓다하니 그것은 무엇이며 또 무슨 이유일까 자기에게 무슨 조흔일이 잇슬것인가 적지아니한 기대를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림만치 기

바람도 부러서 어제보다는 조금 서늘한 편이엇다 순영이는 밧맨것을 도라보앗다 한나절맨것으로는 그전보다 훨신 만히 매여젓다 점심참에 조금 일찌기 나가서 늣게 드러온다 할지라도 저녁때에 조금 부지런히 서드럿스면 전일보다 오히려 만히 매여질것 가탓다 순영이는 점심때가 조금 못된줄을 일면서도 그대로 나갓다

라디오 JODK

家庭時間 「스테풀·파이버」와 그 洗濯法 (二十四、五日后一、一五分) 李義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에 「스테풀·파이버」와 그빨래하는법을 말슴하고저합니다 아직도 「스테풀·파이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분이 만흐신모양이며 왼세상이뒤떠드니까 어리둥절하신분이 만흐신양합니다 그럼으로 「스테풀·파이버」가 무엇이며 어찌해서 그것을써야되느냐 또목면이나 모직(毛織)과어떠케다르며 그것을 섞거서 짯다는 혼방(混紡)이라는 무엇인가를말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빨래하는법을 자세히말슴해드리겟습니다

"우리幼稚園" 泰和幼稚園兒 指導 金恩泰 (二十四日午後六時)

애기들은 어른들가티 숨기거나 꾸밈이란것을 모릅니다 옷고을 고 떼도쓰고 마음에잇는대로 그대로 무엇이든지 합니다 유치원에 모인 애기들은 그래도 꼿잘 노래도부르고 이야기도 잘하고 또뛰기도 하고 합니다 그들애기들이 유치원에서 지내는 하루동안의모양을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도 지금은 학교에를 다니고 아조큰것가티 여기지마는 얼마전까지도 이어린동생들과 갓지안혓습니까

名唱의 밤 (二十四日午後八時)

朴綠珠 李東伯 李素香

오늘밤 연예시간은 「명창의밤」으로하야 우에적은 세분 명창의 출연을 구해서 창극조(唱劇調)를 들려드리기로하엿습니다 심청가(沈淸歌)와적벽가(赤壁歌)중에서 그들이 제일장기로하는 대문을 창할것입니다 고수에는 정원섭(丁元燮)한성준(韓成俊)두분

黃金座名畵旬間

市內黃金座에서는 廿二日부터 卅一日까지十日間 名畵旬間으로 다음順序대로 上映하게되리라한다

一、廿二日―廿五日 "地下層"―文藝「막심·고―리키」의原作『장·르노아―르』監督으로 佛蘭西의 世界的名優『루이·쥬―베』와『장·갸방』『르비강』等主演

"美鷹"―菊池寬의小說로 小杉勇、轟夕起子主演作品

二、廿六日―廿八日 "알프合戰"―『슈트라우스』의作曲을主題로한 作品으로 獨乙의名優『윌리·부리치』『레나―테·뮤―라』『월티―퓨크』의主演한 音樂映畵

"人生劇場"―尾崎士郞原作으로 小杉勇等主演한 明治時代風을 主題로한作品

三、二十九日―三十一日 "銀盤의女王" 世界的피규아·스케―트選手인『쏘니야·헤니』嬢主演으로『아돌프·망쥬―』『돈아메치』等助演한映畵

"松平外記" 澤田淸、河部五郞等出演한時代劇

"情熱의詩人啄木" 詩人石川啄木의傳記映畵로 島耕二(山本嘉一等出演

(寫眞은"地下層"一場面)

放送 JODK 프로그람

二十四日(火曜)

◇正午(東)時報(東)토―키―音樂―丸內海上빌東和商事映畵部試寫室로부터中繼―波瀾萬丈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스테풀·파이버와그洗濯法(一)」 李義一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決勝戰이有할時)―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實業野球리―그『殖銀―鐵道』(雨天順延)

◇同六時 라듸오노리「우리幼稚園」 泰和幼稚園兒童 指導 金恩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感情과理智』 梨專 朴鍾鴻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京畿道農務課 權奇東

▲名唱의밤▼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赤壁賦 二、唱劇調 沈淸歌中船人따라가는데 歌手 朴綠珠 鼓手 丁元燮

◇同八時二〇分 唱劇調 一、短歌 白髮歌 二、唱劇調 沈淸歌中皇城올너가는데 歌手 李東伯 鼓手 韓成俊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大丈夫 나、唱劇調 赤壁歌中當쇠는데 杖鼓 丁元燮 李素香

第一放送

◇正午(東) 토―키―
◇午後六時(東) 童話
◇同六時二五分 講演(京城)
◇同七時二〇分 歌謠
◇同七時四〇分 (自天津)
◇同八時(東) 名曲
◇同八時二〇分(城) 詩吟
◇同八時五五分(大) 義太夫

二十五日(水曜)

◇正午(東) 時報 (東) 合唱 世界民謠旅行(第二回)『佛蘭西民謠』 블루넷트·앙상블

◇午後一時一五分 家庭講座「스테―풀파이버와그洗濯法」(二) 李義一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國語)(決勝戰이有할時)―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實業野球리―그『京電―府廳』(雨天順延)

◇同六時 라디오學校『保存指定된서울안의 古蹟名勝天然記念物』 辛鳳祚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動物愛護와情操敎育』 京城高等女學校 金元圭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苗代管理及移秧法 京畿道農務課 權奇東

◇同八時 管絃樂 DK管絃團 指揮 洪蘭坡 一、유―모레스크…드볼작크作曲 二、音樂小史…부르그만作曲 三、모―망뮤지칼…슈베르트作曲 四、코컨트…아렌스키作曲 五、土耳其行進曲…모―차르트作曲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白鷗詞 二、길軍樂 李月色 崔竹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新作童話『아버지』 金星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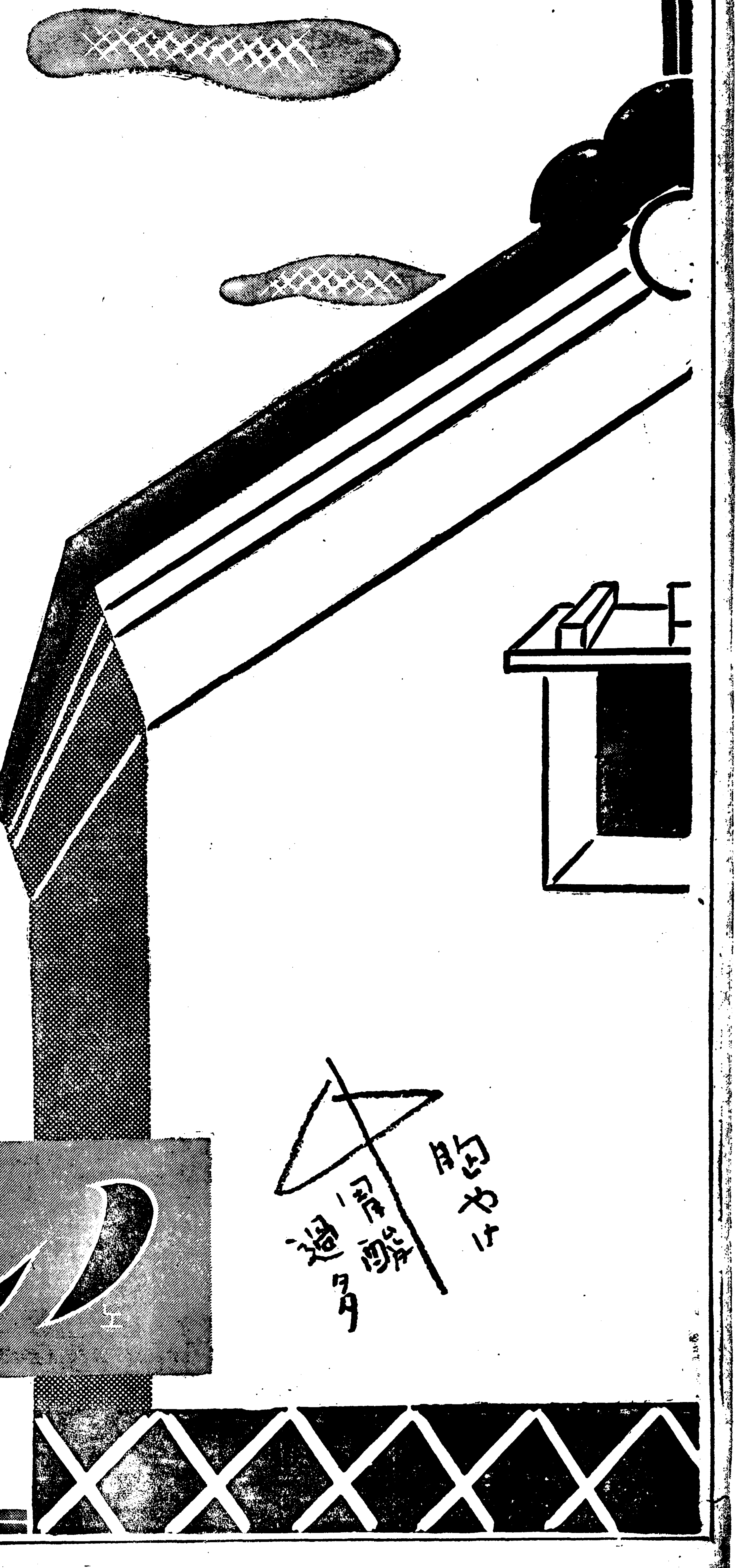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十九)
◇正午(東) 合唱
◇午後六時(大) 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文化講座
◇同七時三〇分(東) 國際座談會
◇同八時四〇分(東) 朗詠
◇同八時五〇分(大) 浪花節

武田發賣

속쓰림이나아서五月晴!



五月을憂鬱케하는胃酸過多의諸症狀

속이쓰리고。 트름과신물이나고。 食後二、三時間해서胃가아푸고。
이러한경우、一服의胃酸中和劑나 한공기의食事로 一時苦痛은 덜지마는、멧時間뒤에는 또 이러난다。
이것은 胃酸過多의 特有症狀으로서、極히 不愉快한것입니다。
그뿐아니라、放置해두면胃潰瘍、胃癌에까지惡化하는故로 조곰도 放心치못합니다。

充分한攝生과 適正한治療法

攝生法으로서는食餌에注意할것、술、담배、생강、개자、茶、코히等의刺戟物을避하고可及的消化잘되는 食餌를攝取하는것이 緊要합니다。

治療劑로서는、單純히胃中의胃酸을一時中和할뿐만아니라、病原인胃液의分泌을正常케하는作用이緊要합니다。

ノルモサン錠의主成分인珪酸알미니움은、이緊切한胃液의分泌調整作用을營爲…… 할뿐만아니라、過剩한胃酸에刺戟되여잇는胃壁을全面的으로被覆保護합니다。

또한 過剩한胃酸을 그分子에 吸着하는作用까지도營爲……即 二重三重으로治療作用이잇슴니다。

胃酸過多症에對한ノルモザン療法이 優秀한것은、此等特殊한作用이잇는까닭입니다

效 胃酸過多、胃潰瘍、속쓰림、신물、胃痛、건구역、胃가다루、
能 胃痙攣、便秘、惡醉、宿醉、船暈、車暈에

新發賣 **小粒ノルモザン** (一回分은八錠)小粒八錠이從來의大粒一錠에相當

ノルモザン錠	
三日分(五〇錠)	一週間分(一円)
十六日分(二円)	一月分(三円五〇)
二月分(五円)	
小粒ノルモザン	
七十二錠	三日分(五〇錢)
一八〇錠	一週間分(一円)
三八四錠	十六日分(二円)

胃酸過多·胃潰瘍에

ノルモザン錠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